

# 美 워싱턴주와 국제교육 협력 확대

### 서거석 교육감, 워싱턴주 교육청과 협약 체결... 국제교류수업 정책 소개·지원

서거석 교육감은 국제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3~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4일 주시애틀 총영사관을 찾아 서은지 총영사를 만나 현지 학교 내 한국어 보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올림피아(Olympia) 소재 워싱턴주 교육청을 공식 방문해 크리스 레이크달(Chris Reykdal) 주교육감과 국제교류 협력에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력 신장 정책에 서로 공감하며 앞으로 교육정책과 계획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hris Reykdal 교육감은 주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전북교육청

의 국제교류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 교육감은 타코마(Tacoma)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교류수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IB 인증학교인 Claudre 중학교를 찾아 IB 프로그램 도입 및 수업과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올림피아(Olympia) 소재 워싱턴주 교육청을 공식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크리스 레이크달(Chris Reykdal) 주교육감과 국제교류 협력에 협의하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역민 문화 교류 공간’... 전주교대, 도서관 개축 기공식

#### 2025년 12월 완공 예정 북카페·열람실 등 들어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5일 도서관 개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기공식에는 박병춘 총장 외 주요 보직교수와, 김우영 전 총장, 이한홍 동창회장, 이동문 발전지원재단 이사, 김신철 군산부설초 교장, 민환성 전주부설초 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면적 5만4,494.99㎡에 총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지상 1층은 황화홀, 북카페, 100주년 기념관, 자유열람실, 사무실, 2층은 힐링라운지, 자유열람실, 힐링테크, 3층은 관장실, 사무실, 휴게라운지, 연속간행물실, 4~5층은 힐링라운지, JUNE서재, 힐링테크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주교육대학교는 5일 도서관 개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병춘 총장과 주요 보직교수와, 김우영 전 총장, 이한홍 동창회장, 이동문 발전지원재단 이사, 김신철 군산부설초 교장, 민환성 전주부설초 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병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 교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올 전북 미래교육 정책 연구과제 결과 공유·확산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연구보고서 발표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5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202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표회는 ‘전라북도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올해 수행한 교육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023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전북교육 10대 핵



심과제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기초학력 보장 정책 운영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를 비롯한 적정 학급규모, 학

교폭력예방활동, 교사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성, 수업노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관련 5건 등 총 6건의 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한숙경 소장은 “올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과 각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연구·개발해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북미래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7일 고1~2학년 담임교사 연수

### 도내 일반계고 담임교사 중 희망자 40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고1~2학년 담임 대상 담임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일반계고 1~2학년 담임교사 중 희망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기 남양주다산고

조만간 교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로 3년간의 진학경험을 지닌 조만간 교사는 2025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 이해와 진학지도 방안 안내라는 주제로 각 회차별 3시간 동안 주요 진학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고1~2학년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현재 중2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대입제도 변경 내용까지 아우르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대입제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대입정보를 찾는 학생·학부모가 많아졌다”면서 “수능이 끝난 지금, 내년 이후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학 전문 교사 양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핵융합 최적화 성능 구현 기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주목’

### 전북대 홍봉근 교수, 핵융합발전로 설계방법론 특허 등록

전북대학교 홍봉근 교수(양자시스템공학과·사진)가 최근 핵융합 발전로 설계방법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핵융합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 크기의 장치와 최대 자기장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으로, 최소의 건설 비용을 보장할 수 있다.



홍 교수의 연구 결과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의 토카막 핵융합발전로의 크기(소형 혹은 대형)와 형상(구형 혹은 전통적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가능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홍 교수는 이 특허를 확장해 한국형 전력생산 실증로(K-DEMO) 및 핵융합발전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많은 설계변수들에 대한 핵융합로의 실증-크기-비용 최적화 설계방법론에 대한 특허도 출원 중이다. 한편 홍봉근 교수는 SCI급 국내·외 저널에 11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핵융합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 40여 년간의 경력을 지

닌 세계적인 전문가로, 총 사업비 2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인 ITER 국제기구의 TBM 프로그램위원회 의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및 올해 6월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 Task Force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홍 교수는 “올해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확정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R&D의 기중점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중심의 한국형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수능 이후 사이버범죄 예방

### 도교육청, 전북경찰청과 고3 대상 예방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지방경찰청과 손잡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범죄나 사이버도박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해 처음으로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0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 유형 및 대처방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

공유 및 예방법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김광수 대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더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근 열린 '2023 대한민국 헴프산업 공동 학술대회 & K-HEMP EXPO'.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의료용 대마’ 산업화 방안 대안 모색

### 헴프산업 학술대회서 전북대 의료용 대마 벤처 사례 발표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회장 심현주)는 최근 ‘2023 대한민국 헴프산업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대학 실험실 창업을 통한 산업화 및 의료용 대마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현주 회장과 채한정 전북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용 대마 국내 연구 개발 동향’ 세션에서 전북대학교의 의료용 대마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사례 발표와 이를 통한 산업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전북대에서는 새싹 대마 벤처(진종식 한약자원학과 교수)를 비롯해 분자육종, 대마 품종 연구 벤처

(이정환 생명과학부 교수), 대마 성분 분석 라이브러리 구축 벤처(조희의 약대 교수) 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용 대마 벤처기업의 우수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회장인 전북대 심현주 교수(약학대학)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 방안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국내 헴프산업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실험실 창업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의료용 대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